

노
91.1.26

여성개발원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 산하 '학생교육원'이 남녀학생에게 성차별적인 프로그램을 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전국 14개 교육원 및 교육요원 1백 30명, 학생 1천1백8명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에게는 사회에서의 역할보다 가정에서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 등 내용과 진행면에서 남녀차별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교육기회 제공면에서 여학생은 학생교육원의 일반 학생 수련과정에 참여빈도가 높는데 비해 남학생은 지도력 배양과정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 '지도자는 남성'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엿보였다.

실제로 89년 △일반학생 수련과정에는 여 62.8%, 남 37.2%인데 비해 △지도력 배양과정에는 각각 46.1%,

53.9%를 차지했다.

특히 여학생 전용 교육원이 사임당교육원과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은 '어질고 알뜰한 여인상' 및 '현숙한 여성'으로서 자질함양 등 전통

74.3%, 지도력 배양과정 학생들은 71%가 만족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여학생의 만족도가 남학생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가사활동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학생 전용 교육원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64.5%로 가장 낮았

로문제, 회의진행등은 개념 설명정도에 그치는데 비해 남학생에게는 예절교육 보다 자아실현 및 진로교육, 회의 진행등이 더욱 중요시됐다.

교사의 교육진행방식에서도 여학생에게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행동특성과 여성다움을 강조하는데 비해 남학

잘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차이점을 드러냈다.

성역할에 대한 의식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에게는 엄격한 성윤리관을 적용하는데 비해 남학생에게는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교육의 결과는 진로의식에서 △여학생은 14.4%가 직업과 상관없이 현모양처라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장래직종으로 전문기술직(42.2%), 사무직(30.3%), 행정관리직(2.2%)을 꼽았는데 비해 △남학생은 전문기술직(47.8%), 사무직(19.6%), 행정관리직(17.4%), 농업직(8.7%)을 들었다.

여성개발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책으로 ▲진로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와의 협조체제구축 ▲학생수련기회의 균등화 ▲교육요원 확충 및 근로조건 개선 ▲성역할 의식교육과정개설 등을 제안했다.

학생교육원 교육 성차별 요소 많다

서건강 91.1.26

여성 가정역할, 남성 지도력배양에 중점

여학생들 만족도 낮아 운영 개선 시급

적 여성상을 설립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적 내용을 강조한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학생 수련과정 학생들은

으며 더욱이 12.4%의 학생들은 불만족을 표시했다.

교육내용이 성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실례로는 여학생에게는 다도 시범, 한복 착용 등 예절교육이 강조되고 진

생에게는 용기있고 박력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또한 여학생에게는 현모양처가 될 것을 역설하면서 남학생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 보다는 사회에서의 역할을